

車업계 호실적에 목소리 커진 노조... 임단협 진통 예상

현대차·기아, 1분기 역대급 실적
정년연장·상여금 요구 거세
‘실적 회복’ 한국지엠·르노
임금인상 팽팽한 기싸움 전망

국내 완성차 업계가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과 임협(임금협상)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완성차 5개사가 12년 만에 일제히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1분기부터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임단협을 앞둔 노조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 현대차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대비 86.3% 증가한 3조5927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시작될 임단협을 앞두고 벌써부터 노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조립공장.

현대차 노조 소식지인 ‘현자지부신문’에 따르면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앞두고 최근 확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만원 이상 임금 인상과 2500만원 이상 성과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가장 중요한 의제로는 정년 연장을 꼽았다.

올해 적절한 임금인상 규모는 ‘11만

원 이상 13만원 미만’이 46.3%로 가장 많았다. ‘5만원 미만’은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다. 원하는 성과금 규모는 ‘2500만원 이상’이 49.2%를 차지해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 올해 별도 요구안에 답아야 할 안건으로 ‘정년 연장’ (59.9%)이 가장 많았고, 상여금 800% 요구(39.6%)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단체협상

에서 파업해서라도 노동 요구안을 쟁취해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51%)을 넘었다.

임단협을 앞두고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노조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측과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기아도 노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기아도 높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최대임금과 최대 성과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아 노조도 정년연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매년 정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최대 실적에 걸맞은 최대 임금과 최대 성과금 쟁취를 최우선으로 하고 올해 임금 및 별도 요구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노조답게 승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달 노조 대의원회를 거쳐 이달 말 상견례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한국지엠도 올해 임협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임협을 앞두고 임금 인상과 함께 성과금에 대해 조율 중이다. 그동안 한국지엠 노조는 오랜기간 이어진 적자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임금 인상과 성과금 지급 논의 과정에서 회사의 요구를 수용해 왔기 때문이다. 올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만

큼 노조원들이 임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또 비정규직 지회의 복직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지엠은 지난 2020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19년 한국지엠 창원 공장 사내하청업체 일부가 폐업하면서 해고된 비정규직 568명을 트랙스로 스오버 신차 생산 설비 도입 이후 복직시키겠다고 구두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기업회생을 끝낸 KG모빌리티는 올해 첫 임단협을 진행하는 만큼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지난 2021년 자구안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리 후생 중단과 직원 임금 20% 삭감을 진행한 만큼 올해는 임금과 복지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KG모빌리티는 중형 SUV 토레스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41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흑자전환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임단협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국내 라인업 부족 등 경쟁력 약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체질개선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소비자 구매 여력 약화로 업체들마다 수익성 증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에 따른 생산 차질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 전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X하우시스

www.lxhausys.co.kr

결국
LX Z:In이거나,
아니거나

편의성에 품격을 더한 프리미엄 창호, 수퍼세이프

LX Z:In

車 수출 232억달러 ‘사상최대’ 친환경차 전년比 30%↑ 선전

흑자 규모 177억달러 수출품 중 1위
미국·유럽 중심 수출 호조세 지속
친환경차 1년 전보다 수출량 33.7%↑

올해 들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의 친환경차 수출이 1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하며 전체 수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미국으로의 친환경차 수출은 상업용 차량 판매 비중이 늘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4월 자동차 수출은 24만7000대, 수출액은 62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25.3%, 40.3% 증가했다. 1~4월 누적 수출액은 232억달러로 사상 최고치, 흑자 규모도 177억달러로 수출 품목 중 1위를 기록했다.

자동차수출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증가했다. 특히,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수출은 6만4000대(20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수출량 기준 33.7%, 수출액으로는 55.8% 상승했다.

4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를 찍은 작년 3월에 이어 역대 2번째 높고, 3개월 연속 2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자

동차 수출 호조를 이끌고 있다.

친환경차 4월 내수 판매는 4만5000대로 전체 내수의 30.1%를 차지한다. 차종별로는 하이브리드(2만9306대), 전기차(1만4339대) 내수 판매가 각각 두 자릿수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공급 정상화 등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4.7% 증가한 38만2000대를 기록했다.

그랜저와 아이오닉 등 신차 효과 등에 힘입어 현대차·기아·한국지엠 생산이 늘었고, 작년 7월 출시된 토레스 영향으로 KG모빌리티 생산도 증가한 반면, XM3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르노코리아 차 생산은 소폭 줄었다.

자동차내수판매는 대기수요를 바탕으로 한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4.3% 증가한 14만9000대를 기록했다. 내수는 신차 효과가 희미를 갈랐다. 현대차와 한국지엠, KG모빌리티는 신형 그랜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 토레스(2022년 7월 출시) 국내 출시 등으로 증가했다. 반면, 기아는 스팅어 등 구형 모델 판매량이 줄면서, 르노코리아는 XM3 판매량 감소 영향으로 내수 판매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